

『민화협 2020 통일정책포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2020. 5. 26.(화), 14:00~15: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
김홍걸 당 선 인

주관 : 민화협 정책위원회
(사)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

후원 : 통일부

목 차

민화협 2020 통일정책포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03	【 목 차 】
05	【 프로그램 】
【 통일정책포럼 】	
07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
17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발전
21	박종철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북중 사이의 ‘관광교류’라는 새로운 접근법
【참고자료】	
30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34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
38	〈9월 평양공동선언〉
41	【 메 모 】

민화협 2020 통일정책포럼

Program

14:00 ~ 14:20	<개회식> · 인사말 :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화협 상임의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 기념촬영
14:20 ~ 15:25	[민화협 2020 통일정책포럼 :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사회 :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발 표.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 ·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토 론1.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토 론2. ·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 토 론3. · 박종철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15:25 ~ 15:30	청중질의 및 폐회

※ 청중의견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료집 뒷부분 <메모(MEMO)>에 작성하신 후
실무자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

민 경 태 통일교육원 교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안, 2020.5.26]

북한의 경제동향 및 평화경제 비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민 경 태 교수

minkenny@gmail.com

신압록강대교 북측 도로연결 공사

출처: "北, 신압록강대교 개통 박차... 야간 작업 포착," 『KBS 뉴스』, 2020년 4월 27일; 박종철 경성대 교수 페이스북.



평양종합병원 건설 계획



평양의 중심축과 상징물

출처: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서울연구원, 2014), p. 34.



1. 만수대



2. 혁명박물관



3. 당창건 기념탑



통일부
통일교육원 10

[제안] 보건·의료 협력을 경험으로 확대

-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 방안부터 모색**
 - 첨단 의료기기 제공, 운영인력·의료진 육성 등 의료시스템 지원
 - 개성에 남북협력 의료센터 설립,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의료 협력과 관광 산업을 연계한 국제 의료·휴양 관광지 개발**
 -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남한 의료기술과 헬스산업 접목
 -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 및 호텔·리조트·컨벤션 산업 육성
- **‘K-의료’ 서비스의 국제화, 미래 한반도의 주요 사업으로 육성**
 - 의료 분야에서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상생적 협력 모델 발굴
 - 북한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추진동력 확보

통일부
통일교육원 11

개성에 남북협력 의료센터를 만들자

출처: 민경태, 『경기일보』, 2020년 3월 30일.

북한은 지난 17일 동평양 문수거리 인근에 평양종합병원을 착공했다.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조정하면서까지 병원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앞당겨 공급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종합병원 건설 계획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200일 내 완공' 속도전을 추진하게 됐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도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설이 미비한 북한으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평양종합병원의 위치가 특이하다. 평양에는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2개의 경관축이 있는데, 하나는 김일성 광장과 주체사상탑을 연결하는 축이며 다른 하나는 만수대 언덕과 당창건기념탑을 연결하는 축이다. 이렇게 중요한 두 번째 축선 상에 건물을 지어서 경관을 막아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상 이곳은 조망을 위해 비워두었던 공간이라서 갑작스런 장방형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기엔 통상적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제약을 극복하고 설계된 건물은 오히려 상당히 현대적인 스타일을 갖추게 됐다.

『아침을 열면서』



민 경 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여기에서도 김정은 시대에 크게 달라진 북한의 모습이 엿보인다. 평양종합병원 부지 선정은 과거 유산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다. 기존에는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서 대동강 건너편 당창건기념탑이 바로 내려다보였지만 앞으로는 평양종합병원만 보이게 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나 이를 무한정 지속하기는 어렵다. 경제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기 전까지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관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원산-양덕-삼지연 등 주요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규모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의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북한에게는 여전히 큰 위협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경험에 우선해서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건강은 당장 남북한 교류를 위해서나 미래 한반도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약품과 물자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의료장비를 공급하고 북한 주요도시에 종합병원을 건설해서 의료 수준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관광과 보건 의료 시설에 대한 투자는 경제체제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미첼 바젤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의선의 거점 개성에 남북협력 의료센터를 만들자. 북한 의료진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료장비와 약품을 생산하는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DMZ 국제평화지대 및 생태공원과 연계한 의료·휴양·컨벤션 시설을 갖추어 세계적인 의료 관광지로 육성하자. 개성공단 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해서 여기서 생산된 의료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날을 꿈꿔 본다.

12

원산을 국제적인 의료·휴양 관광지로 만들자

출처: 민경태, 『경기일보』, 2020년 4월 27일.

코로나19는 세계인의 이목을 한반도로 집중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러 국가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드라이브스루 검사방식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제 인류의 영역이 보건·의료 분야까지 확대돼 'K-의료'의 시대가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다룰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북한의 '자력갱생'이 쉽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원산-양덕-삼지연 등 관광지를 개발해왔다. 관광은 경제체제 국면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올해 4월15일 완공 예정이었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대신 최근 서울러 착공된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진국들도 국가적 위기에 처한 마당에 의료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해외관광객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 입장이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할까. 만약 남북정상회담에 보건·의료 협력이 의제로 채택된다면 단순히 의약품과 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북한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주요도시 의료센터

『아침을 열면서』



민 경 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를 건설하고 첨단 의료기기 제공, 운영인력과 의료진 양성 등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나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북한 의료 선진화는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의료 협력과 함께 관광 사업을 연계해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산을 국제적인 의료·휴양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에 대규모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호텔·리조트·컨벤션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선 남한의 노하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의료 기술과 헬스산업을 접목한 의료·휴양 복합 관광지로 개발하자면 남북 협력이 절실하다. 북한으로서는 투자 재원을 분담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허리에 자리 잡은 원산은 지리적

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서울과 평양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동해안 항구도시로서 일본과 연계를 용이하며 국제 크루즈선박의 경유지로 개발할 수도 있다. 명사십리와 송도원의 아름다운 해변, 금강산, 마식령스키장, 통천온천 등 인근에 관광명소가 많다. 태백산맥 동쪽이라 겨울철 미세먼지의 영향도 적어서 휴양 및 요양시설의 위치로는 최적이다.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국제투자 유치도 검토해 보자. 원산 경제특구에 특별법을 적용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주가·리조트 단지를 분양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와 협력해 보건·의료 및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입장에서선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원산 국제 의료·휴양 관광지의 미래를 꿈꿔 본다. 세계 각국에서 수준 높은 'K-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원산에 와서 치료와 휴양을 한 후 관광을 한다. 한국의 노년층은 아름다운 해변의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노후를 보낸다. 원산 경제특구에는 의료·휴양에 특화된 남북 협력 산업을 육성하고 원산항을 통해 수출한다. 이런 구상을 담은 원산 개발 방안을 올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제안하면 어떨까.

13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지정

- **평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국제적 평화경제지구로 발전**
 - 판문점: 정전협정,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평화협력 거점으로 육성**
 - 남·북 주재 유엔기구, 평화·생태·문화·보건 관련 국제기구 유치
 - 평화연구, 군비통제, 신뢰구축을 위한 관련 인프라 조성
- **DMZ 지뢰 제거 및 UNESCO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JSA, 화살머리고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단체와 협력
 - DMZ 종합조사, 남북공동등재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제안] DMZ 국제평화도시와 생태공원

출처: 민경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미래의창, 2018), pp. 226~228.

- **DMZ 에 국제평화도시와 생태공원 조성**
 - 다양한 UN산하기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 국제기구 유치
 - 브뤼셀이나 제네바 같은 국제기구 허브로 육성
- **개성공단 2단계는 교육·지식산업 및 MICE 산업을 육성**
 - 교육·지식·컨텐츠·컨벤션·문화·공연·전시 산업 분야에 집중
 - 지식 네트워크 허브, 국제회의 관련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
- **DMZ 內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공원 및 생태도시 건설**
 - DMZ 를 거대한 생태공원으로 전환,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
 - 생태동물원·테마파크 조성. DMZ 올레길, 영화제, 음악회 등

DMZ 국제도시, 미래 세계정부의 중심으로

출처: 민경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미래의창, 2018), pp. 226~228.

DMZ 국제도시: 미래 세계정부의 중심으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군사적 대립의 상징이었던 DMZ(비무장지대)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 지역은 단지 남북 한만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될 것이다.

바로 이 DMZ에 국제평화도시와 생태공원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DMZ의 전체 면적은 992km²다. 워싱턴 D.C.의 6배, 맨해튼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동북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 지역에 UN

산하기구, 동북아개발은행(가칭) 등 여러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유럽 연합의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이나 UN 산하기구가 모여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국제기구 허브로 육성할 수 있다. 판문점은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공간으로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DMZ 국제평화도시에는 기존에는 없었으나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본부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DMZ 생태공원의 성격을 감안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신문명 미래도시 연구소 등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부합하는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를 설립하면 좋을 것이다. DMZ를 미래 세계 문명의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도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에 연결되어 남북한 수도권에서 모두 접근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DMZ 국제도시에서 지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컨텐츠·컨벤션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면 좋을 것이다.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국제회의의 관련 컨벤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식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DMZ 내에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거대한 생태공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남북의 정상이 40분간 대화할 때 녹음되었던 새소리는 무리 13종류가 넘었다고 한다. 그만큼 DMZ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예이다.



도보다리 현지 위의 남북 정상 대화 장면

DMZ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예이다.

DMZ 생태공원에는 이와 같은 자연환경을 살려서 다양한 동물원 및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또한 DMZ를 따라 한반도를 횡단하는 율령길을 만들고, 전기대로나 크로스컨트리 같은 스포츠 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MZ 국제도시의 컨벤션시설을 활용하면 남북 문단과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하는 영화제나 음악회의 개최도 가능하다. DMZ의 자연을 주제로 한 자연생태 사진전시회나 미술전시회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제안] DMZ 국제평화도시의 유망 산업

- **교육 및 의료산업 분야 남북한 협력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
 - 북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경영, 의료, ICT 분야) 및 휴양 병원
 - 한류 붐을 활용,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국제학교
 - 북한 관광산업 분야 인력 육성을 위한 관광/호텔/서비스 관련 대학
- **국제 컨벤션, 생태공원, 공연/전시/문화 등 MICE 산업**
 - 회의장, 공연장, 전시장, 음악당, 스포츠시설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
 - 서울-평양 올림픽 행사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산업을 개성공단에 적용
- **서울-개성-평양의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물류유통 산업**
 - 서울-평양 고속철/GTX 등을 활용, 메가시티의 배후 물류단지 개발
 - 인접한 인천공항/해주항을 활용, 국제무역 및 물류유통 거점으로 육성

[제안]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 **서울-평양 메가시티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테스트베드로**
 - 통합된 도시 네트워크로 형성된 하나의 광역경제권 구축
 - 新경의선 고속철과 GTX 연장선이 남북 수도권 주요거점 연결
- **컨벤션·관광·물류·문화·스포츠 산업 협력 거점으로 육성**
 - 개성에 올림픽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및 컨트롤센터 설치
 - 회의장·호텔·공연장·데이터센터 등을 갖춘 접경지역 평화도시
- **4차 산업혁명 분야 남북협력을 시험하는 스마트 올림픽**
 -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올림픽,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운영
 - 자율주행 교통수단, 5G 통신망,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적용

‘평화경제’의 시험대,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출처: 민경태, 『경기일보』, 2019년 9월 9일.

지금 한반도는 격동기를 지나고 있다. 동북아 지정학의 구조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은 물론이고,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등 초강대국들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립하는 기존 구도를 탈파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교량으로서 한반도의 역할을 되살려야 한다. 동북아에서 오랜 세월 지속된 지리정치학적 갈등을 이제는 지리경제학적 연결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남북 두 정상은 약속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최근 북한은 거친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앞두고 살바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조차 향후 정치 안정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안에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제정치 환경과는 별도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은 꾸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꿈으로부터 접근해보자. 앞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

「아침을 열면서」

민 경 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는 아주 현실적인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바로 2032 서울-평양 올림픽이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4조 2항을 살펴보자.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32년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서로 떨어진 두 도시가 아니라 통합된 도시 네트워크로 형성된 하나의 광역경제권, 즉 ‘서울-평양 메가시티’로 발전된 상태를 꿈꿔 보자. 신(新)경의선 고속철과 GTX 연장선은 서울을 출발해 개성과 해주를 지나 남포, 평양 등 북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게 된다. 첨단 도시운영 인프라와 시스템에 의해 방문자들은 마치 잘 구성된 하나의 도시를 체험하는 듯 느끼게 될 것이다.

서울-평양 메가시티의 여러 도시는 올림픽 경기를 위한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컨벤션·

관광·물류·문화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남북한 협력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남북한 접경에 있는 개성은 올림픽 행사를 위한 남북공동준비위원회와 컨트롤센터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개성공단 2단계는 생산시설 위주의 기존 계획을 변경해 올림픽을 지원하는 회의장·호텔·공연장·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고, 향후 판문점-DMZ와 연계해 MICE 산업 중심 평화도시를 육성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미래 한반도의 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분야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올림픽 단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셔틀뿐 아니라 서울과 평양을 잇는 자율주행 관광버스, 대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센서와 하수관리 시스템, 물류·교통 신호체계와 인공지능 환승센터, 테러방지 및 안전보안 시스템 등 첨단 도시운영 인프라를 남북이 함께 구축하고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유치를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상황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서울-평양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교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서울-인천-경기와 평양-남포-해주-개성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서울-평양 메가시티의 운영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일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행해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제안] 서울-평양 고속철도 및 GTX 연결



통일부 통일교육원 20

운정을 경유역으로, 평양까지 GTX 연결

출처: 민경태, 『경기일보』, 2019년 10월 7일.

서울 강남은 왜 제일 땅값이 비싼 지역이 됐을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우선 지리경제학적 측면에 주목해보자. 1970년대 경제개발은 수도권과 동남권 산업단지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개통부터 시작됐다. 이후 경부선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성장해 모든 에너지와 정보가 이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다. 생명체에 비유하자면 대동맥과 중추신경망이 지나가는 핵심적 위치에 자리 잡았기에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강북과 경기도 북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가 지금은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고려시대 수도 개성은 작은 도시로 위축했고, 함안도시 해주는 군사적 집중 외에는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분단 이후 접경지역은 피가 통하지 않는 단절된 지역이 됐기 때문이다. 반면 평양의 북쪽 변두리였던 평성은 물류와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평양과 북부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분단은 데칼코마니와도 같은 지리경제학적 특성을 남북한 모두에 남겨줬다. 즉, 접경지역은 낙후되고 서울의 남쪽과 평양의 북쪽이 흥해가 된 것이다. 그럼 앞으로 미래 한반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제 한반도의

「아침을 열면서」



민 경 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대동맥을 연결해 섬나라와 같이 취급받았던 과거를 극복하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한반도의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 당장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남북한의 물류·교통망 연결은 필수적이다. 서울과 평양의 직선거리는 200km 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상용화된 중국 고속철이 시속 350km 이상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건설될 서울-평양 고속철도는 30분 정도면 두 도시를 연결할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이 서로 떨어진 도시로서가 아니라 '서울-평양 메가시티'라는 단일 광역경제권으로 기능하는 것도 꿈꿔 볼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시급한 것은 남북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의 연결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산업지형 특성상 실제로 인구가 거주하고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넓지 않다. 남북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루트를 살펴

보면 서울과 평양 사이의 좁은 지역이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기존 경의선과 같이 단일 노선만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내에서만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접점으로서 수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2~3개의 주요 노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철도망 연결을 제안한다. 기존 경의선은 개보수를 화물 전용으로 활용하고, 신규 건설하는 신경의선 고속철도는 인천공항과 경기 남부지역을 출발해 서울을 통과하고 김포, 개성, 해주, 남포 등을 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 중심부와는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 이미 착공된 GTX망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GTX-A 노선은 동탄, 수서, 서울역을 지나 파주 운정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여기서 임진강을 건너면 바로 개성이다. 운정을 종착역이 아닌 경유역으로 전환하고 평양까지 연장한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구축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미래 한반도의 지리경제학은 어떻게 변할까.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길목이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서울 강북과 수도권 북부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평양 GTX 연결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구체적 실현이 될 것이다.

21

[제안]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



통일부 통일교육원 22

북한 고속철 건설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자

출처: 민경태, 『경기일보』, 2019년 11월 4일.

지난달 25일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남북관계의 중대한 위기지만 이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무회담으로 풀기 어렵다면 고위급회담이나 특사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자.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더욱 큰 틀에서 관광산업 전반을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관광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키우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고 서비스 운영 경험도 부족하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남한이 파트너가 된다면 관광을 한반도의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북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교통 인프라 건설이다. 예를 들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는 엄청난 규모로 관광 및 숙박 시설이 건설되고 있지만 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전에 비해 갈마공항의 인프라가 개선됐지만 대규모 관광객 수용을 위해선 고속철도 건설이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평양~원산 구간에 신칸센을 놓아달라고 일본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중국은 오래전

「아침을 열면서」



민 경 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부터 평양~신의주 구간 경의선 고속철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약 한국이 배제되고 다른 국가가 북한 고속철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면 통탄할 일이다. 퍼주기 논란은 고사하고 앞으로 북한 투자에서 우리가 소외될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선 서울~평양 구간에 고속철을 놓아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 KTX를 북한 전역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요 기간시설인 고속철은 외국의 도움 없이 남북한 자력으로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사회 내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북한 고속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구성하고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북한 관광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한국이 적극 지원한다면, 북한의 신뢰를 확보하고 비핵화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철도는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이므로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받는 방안도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 컨소시엄은 한국을 비롯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 국가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철도망 구축과 함께 경제특구 개발에도 이들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은 단둥~신의주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나선~훈춘~하산 삼각 협력에 관심이 크다. 일본은 전쟁배상금이 합의되면 원산지 투자 유망하며, 미국은 동해안 관광단지나 자원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컨소시엄의 기능을 철도 연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특구 개발도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북한 성장의 열매를 주변 국가들과 나누는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동의와 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북한 철도는 유라시아 철도의 연장으로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당면한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미래 한반도의 원대한 구상과 연계하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23



[블로그]

http://blog.naver.com/min_kenny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inkenny>

[KBS 라디오 인터뷰]

<https://youtu.be/S5GvhygdtU>

[KBS 라디오 책소개]

<https://youtu.be/tXUndv6pl1s>

[토론1]

‘ 포스트 코로나 ’ 시대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발전

김 용 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가별 접근

접근	국가	비고
권위주의	북한(중국)	격리, 봉쇄, 경제 타격
세계주의 + 민주주의	한국	공공성 강화, 생명 존중, 모범적 국가 역할
자유주의	미국, 유럽, 일본	공공성 약화 국가 역할 방기(방임)

○ 코로나19 예방 협력을 마중물로, 총선 민심을 엔진으로 VIP 남북관계 개선 동력 확보.

○ 전지구적 코로나 사태, 한미 최고지도자간 대화와 협력 강화 통해 예방협력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 유도

- 남측의 일방적인 시혜성 지원보다는 유무상통(有無相通), 상호 협력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 북측이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 예방의료, 보건의료 협력 → 인도적 협력(이산상봉) → 경제협력
- 코로나19 단기 대응을 위한 대북 예방의료, 보건의료 지원
 - “코로나에 휴전선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 발견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단키트, 마스크 지원과 같은 긴급 방역 물품 지원. 보건의료 방역 통제 시스템 지원
 - 대한적십자사 및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통로 활성화. 남북한 민간교류협력 채널 복원
 - 국내 여론 긍정적 흐름으로 유도.
- 개성공단 재가동, 보건의료방역 생산기지화 전략 제안(유엔 대북제재 유예 필요)
 - 개성공단 다수 봉제업체 → 제3세계 국가 등 세계를 향한 마스크 생산라인 구축
 - 방호복, 손소독제, 장갑, 고글, 안면보호구 등 전염병 위기 대응 물자 패키지 생산 국제기지
- DMZ 내 동아시아 전염병 공동관리기구 신설
 - 전염병 공동관리기구 신설 제안 (남북한, 미·중·일·러)
 - 코로나19와 감염병 관련 국제적 연구 및 약품 생산을 위한 ‘DMZ 국제메디컬센터’설치
 - ※ 유엔 동의 절차 검토
- K-방역의 세계화, 상품화를 통한 한국의 보건선진국 국격 고양
 - K-방역에서 K-평화로, 한반도 생명공동체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로

○ 한반도 생명공동체

-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수립을 제시.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남북 예방, 보건협력이 ‘한반도 생명공동체, 한반도 생활공동체’ 수립의 기반
- ‘DMZ 국제메디컬센터’, 보건·의료·방역 물품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해 남북 보건협력이 이뤄지고 그 가운데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첫 단추를 꿰 수 있을 것.
- 한반도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 현실화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한반도 생명공동체, 한반도 생활공동체’ 수립의 기반으로 진화. VIP께서 이미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수립을 제시

- ‘DMZ 국제메디컬센터’는 보건·의료·방역 물품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며, 그 길은 한반도 생명공동체와 관계, 기반 아래 성장 진화

○ 동아시아, 유라시아 차원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 접목시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로 확장

북중 사이의 ‘관광교류’ 라는 새로운 접근법

박 종 철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1.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 제재에 대한 상충된 접근법¹⁾

시진핑은 김정은의 후계시절부터 후견을 하였는데,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에도 후진타오-시진핑 지도부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4-17년 제3차에서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양국 관계 대립이 극에 달하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4차례의 김정은 방중과 1차례의 시진핑 방북이 달성되어, 역사상 최상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 안보리 결의안이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북미 사이에 상충된 제재완화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교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진핑의 조용한 간여가 주목되고 있다. 비록 9월 불턴 보좌관이 해임되었지만, 싱가포르 회담에서 불턴의 리비아식 해법이 고수되었고, 미측은 ‘선비핵화, 후보상’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최선희 부상의 인터뷰에서 알수 있듯이 북측은 비핵화협상과 제재완화의 동시병행, 즉 상호주의적 위협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상호 상충된 해법 사이에서 남북-북미 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무역마찰과 홍콩 시위 등으

1) 박종철, 2019, 「책임대국의 품격과 동맹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 사이의 딜레마: 시진핑의 ‘관광교류’ 라는 새로운 접근법」, 『성균차이나브리프』를 수정보완함.

로 중미마찰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시진핑은 책임대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여 미국과 지구촌 질서유지를 해야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시진핑은 김정은의 제재완화를 해야 비핵화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동맹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시진핑의 미국의 제재강화입장 동조와 북한의 제재완화입장 동조라는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정책을 대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마찰, 홍콩시위 등 미중 경제마찰이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점층적으로 전이되는 국면에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재발견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북핵협상 교착국면에서 시진핑에게 북한은 냉전과 중소분쟁 시기처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시진핑은 북미 핵협상을 추동하기 위하여, 책임대국과 동맹 사이에 딜레마에서 시진핑은 무역제재에서 비무역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북중 국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24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북한 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18년 북중 무역은 약 80%가 축소되어, 공식부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명백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대략 3억5천만 달러였는데, 2018년 각각 7천만달러 이하로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무역통계에 비무역수지와 더불어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 생산량 증가는 산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국해관에 발표한 무역수지보다 통상적으로 비공식 무역이 수배에 이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북 무역제재가 비핵화 동력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시각은 다르다. 볼턴과 같은 보수파는 무역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대화로 나왔고, 비핵화의 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제재를 강화해야 대화가 진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측은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상호 신뢰조치를 보아야 하므로, 풍계리 폭파와 같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일정한 제재완화가 상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왕이 외교부장의 쌍중단, 쌍궤병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히려 중러가 보는 미국 강경파의 입장은 제재를 통하여 북한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체제 위기를 부추기는 전략으로, 중러는 이러한 미 강경파의 전략은 북한의 안보위기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북의 핵개발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2. 북중 개별 관광 현황

필자는 중국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몇 차례 북측학자들과 북중-북러 경제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북중-북러 경제협력의 도전과 기회 요인으로 비핵화, 안전보장, 그리고 제재해제와 경제적 상응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학자들은 ‘근본 경제문제는 국제제재이다. 제재 해결없이 어떻게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냐’고 질문했다. 중러 인사들은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각각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조선, 미국 삼방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중국, 러시아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경지역에서 만난 지역의 현지인사들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관광협력방안을 미북 사이의 절충적 해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중러가 유엔 안보리의 무역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비무역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김정은의 비핵화 동력을 유지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무역 중심’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경제분야에서 중러 지도부는 비무역 교류라는 새로운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 수지에서 대표적인 무역 이외의 중요한 분야로 노동자의 송금과 관광 분야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의 노동자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와 북한의 노동자 송출 욕구가 결부되어, 오히려 현재 인력이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회담과 같은 평화징후가 보이면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더불어 북측에 중국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북측 인사는 현재 북한 관광이 자연풍광 위주인데, 한국의 인문여행과 스토리가 있는 여행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극적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북경 방문을 계기로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전환이 이루어졌다. ‘2017년 김정은은 중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똥보 삼부자 이미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패악에 대항하여, 약소국의 젊은 지도자로서 핵을 개발했다. 이제는 중국지도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사고 있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의 전제조건은 비핵화 의지였는데,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북 제재는 중국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북중 인적교류 제한은 중국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실제 중국정부의 단독 제재에 해당하는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진핑은 농업, 관광, 교육, 보건, 스포츠, 미디어, 청년, 지방의 8대 분야 교류 지침을 하달하였다. 2020년 1월 필자가 면담한 관계자에 의하면, 2019년 중국 내 북한 인원 최대치는 10만여명에 이르고, 수 천명 이상이 연수를 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의 연수 특징은 중국에서 연수 이후, 중국고급기술자들이 다시 북측 기관을 방문하여 다시 지도를 한다고 한다.

관광협력은 수도꼭지와 같아서, 대국입장에서 약소한 상대국을 압박하기 쉬운 수단이다. 만약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중국정부는 언제든지 또 다시 수도꼭지를 잠가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더불어 관광은 현금거래이므로 무역과 달리 즉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전략 무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개별 관광이라는 상호모순된 용어의 중국관광객에는 보따리 상인들이 뒤섞여 있고, 이들은 소량 물품을 거래하는 인해전술 방식의 보따리무역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북핵 실험 이후 지방 세관이 결의안을 넘어서서 물품, 현금 등을 자의적으로 검사 강화를 해서 중국 단독 제재 효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거의 모든 물품거래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이후, 중국해관법을 준수하며 세관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지역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1인당 60kg, 6000위엔(약100만원), 그리고 현금 1만달러 정도는 검사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관검사와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에는 유엔 결의안과 중국 해관법, 그리고 정치적 배려 사이의 괴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6월 시진핑 방북 전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 등에 중국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비료와 곡물 등 대규모 민생분야의 지원을 단행하였다.²⁾

추가적으로 필자가 관찰한 광산분야와 임농복합경영 상황을 보면, 북측 내수 분야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신문 2014년 5월 28일 조선속도의 본보기로 중강군 3월 5일 청년광산의 성공을 설명하고 있다.

2) 정은이, 2019, 「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와 '무역외수지」, 『온라인시리즈』.

필자가 관찰한 이 광산은 낮에는 중장비가 쉼없이 움직이는 활발한 산업활동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며, 밤에는 야간조명, 특히 네온사인이 화려하다. 이 도시 앞의 중국측은 마을도 없고 관광객도 없는 상황이다. 외부관찰자를 위하여 신의주 등 조명을 밝힌다는 일부 주장과는 배치되는 도시경관인 것이다. 더불어 동과 몰리브덴 등과 같은 희토류는 제재품목이라서 수출이 어려워서 채굴량이 대폭 줄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북한 내부 산업 수요에 따라서 관련 광산, 제련소 등 활발한 광산 채굴활동을 목격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풀먹이를 주식으로 하는 가축, 소, 말, 염소, 양, 토끼 등과 오리, 닭 등의 농장을 북중국경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작년보다 더욱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목격할 수 있다.

3. 정상회담의 컨벤션효과와 중국 기업의 손타쿠(忖度)문화

이와 더불어 중국 기업인들과 인터뷰 조사에서 북한 산업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는 일종의 컨벤션효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일본의 정부-기업 관계는 일종의 손타쿠(忖度)문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 스스로가 당국의 속마음(本音)을 미리 알아서 능동적으로 사업에 적극 간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부상하는 북한을 먼저 선점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당국의 공식지침이나 문건이 없더라도 정부의 외교정책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손타쿠를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제재와 무관하게,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인들은 북한 방문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수중심의 중국기업인들의 북한 산업시찰을 활발히 하고 있고, 제재국면에서 투자를 불가능하지만, 북한 각 지역에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하며, 신의주-평양 사이는 북중 제외한 제3국이 진출하는데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다. 평양을 시찰하는 기업인들에 대하여 평양 주재 중국외교관들은 엄격히 투자를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땅 ‘조선’을 주목하라는 상호모순된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이들은 북한 당국이 철도와 도로 분야는 북한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들의 주장

에 의하면, 중국은 미래가치를 보며 중국에서 오지인 훈춘까지 고속철도를 개설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연결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도문시 담당자와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급 동북진흥계획은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설명해 주었다. 더불어 단둥-신의주-평양, 도문-청진의 고속철 구간은 중국 표준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 변경의 각 도시 사이에 북한 비핵화와 개방 가능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살바싸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더불어 인적교류는 주요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학술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평양의 주요대학과 북경대학, 복단대학, 연변대학(조선반도포럼, 두만강포럼 등) 등 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이 학술회의, 교수교환, 교환학생 등을 증가시키고 있고, 차열학회와 같은 민간연구소에서도 북측 인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 중조국제영화제, 장애인영화제, 로동신문의 해외연수 등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에 따라서 단둥, 훈춘 등 국경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관광객이 폭증했다.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에 따라서 중국 내륙에서조차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3월 만포-집안 관광 재개와 통상구 개통, 고려항공 취항, 8월 도문-남양-청진 관광열차 재개, 도문대교와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 주요도시와 평양 노선 재개설 준비가 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북중 국경 전체의 교량, 세관, 부대설비, 관련 무역창고 등이 대대적으로 신·개축되고 있다. 더불어 18호실, 대외경제성 등 다양한 학계와 내각의 주요인사의 중국 연수와 더불어 고려항공과 같은 민간영역에서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승무원의 중국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관광객 증가, 중국 내 북한인력 증가, 비공식 무역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에 들어가는 기차표, 항공표 등이 부족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업인들의 산업시찰도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 내부만이 아니라, 중국측 국경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관광특수가 벌어진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특수도 있지만,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관광객의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

도문-청진 철도 여행은 오랜 전부터 시행되었는데, 북한 철도당국은 중국 관광객을 위하여 중국 열차를 도문-남양-청진 구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진의 군사지역이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되고 있고, 호텔 부족문제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외국인에 민박으로 허용되었고, 중국 열차 내에서 숙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청진과 칠보산 관광을 하는 코스가 인기이지만, 실제 외국인 관광객 인원에는 비하여 청진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적은 편이라고 한다. 더불어 도문 기업인들은 라진에 일부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장 개방적인 라진마저도 외국인에 대한 소유와 임대 계약이 명확하지 않는 투자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도문시 정부와 기업인들은 북한 중앙 정부와 남·북·중 관광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만명 이르는 관광객이 도문을 방문하고 있는데, 도문-남양에 더 많은 시간동안 체류하며 관광비용을 사용하게 하는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단동(신의주), 집안(만포), 장백(혜산), 훈춘(라진) 지역에서도 같은 관광분야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 각지에 호텔, 도로, 스키장 등 기본 관광인프라가 건설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원산갈마지구 관광단지에 4성급 이상 호텔 18개, 려관 34개 등, 삼지연지구에 6성급호텔 5개 이상과 스키장 등이 완공 준비 중이고, 원산갈마공항의 경우에도 보잉의 대형기종 이착륙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 더불어 신압록강대교, 삼지연 등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4.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가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대규모 인적교류가 있으면서 대량현금(Bulk Cash)과 노동자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하는 북측인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며, 신규 노동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주(단동), 만포(집안), 혜산(장백), 남양(도문), 원정리(권하) 등 국경도시의 통상구에서 중국 관광객을 발견할 수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대량현금을 통제하여 위하여 지역별로 1일 300여명 수준으로 여행자 통관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한에도 불구하고 통상구마다 연간 약 10만여명이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거래가 없는 소규모 여행사들이 1일 30명 이하의 소규

모 여행단을 조직하고 있고, 여행자 명단을 보면 지역이 중국 각지로 분산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³⁾ 여행비용 부분에서 여행사에서 북측으로 직접 제공하는 랜드비가 축소되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대량현금 문제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량현금문제를 둘러싼 세컨더리 보이콧에 염두에 두고, 미국과 거래가 없는 소규모 지방 여행사가 북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측면이 보여지는데, 중앙은 결의안 준수를 중요시하고 있고, 국경 지방은 북측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5. 글로벌 코로나 팬더믹(COVID-19 Pandemic)에 의한 국경업무 중단

필자가 2020년 1월 단동, 연길 등 국경을 방문하였다. 2019년 연말 김정은 위원장은 강경한 어조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한미의 합의이행문제를 유감을 표시하였다. 필자가 만난 중국측 관계자에 의하면,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연말, 단동에서 대규모 식량, 종자, 비료, 농약 등이 북측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트럼프의 대북 강경압박과 더불어 시진핑의 선물외교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당초 예정된 상업이나 일부 한국의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옥수수) 지원이 연기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연말 북측 농업기관에서 상당량의 물자를 수입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종자, 비료, 농약 등이 연말 가장 저렴하고, 3-5월 사이 중국측 파종에 대비해서 가격을 올리는 정부정책이 있는데, 김정일 시기에는 무역회사들이 봄철 가격이 최고치일 때 정부의 배당량을 수입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에는 농업전문기관에서 연말 가격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하여 세관근처에 받아서, 북측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더불어 2019년 12월 22일 최종적으로 북한노동자 비자만료(UNSC 2375)에 따라서 귀국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북한 종업원을 고용한 식당 상당수도 영업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대북 무역상들에 의하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북한경제에 긍정적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북중 국경을 매

3) 정은이, 2019, 「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와 '무역외수지」, 『온라인시리즈』.

년 설날 명절에 폐쇄하는데 2020년은 1월 22일 국경업무가 중지되었다. 이후 2월 북측은 무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자 국경을 폐쇄하였고, 3월 재개를 준비 하였지만, 북측에 독감이 유행하자 중국측이 재개를 연기하였다. 필자가 1월에 만난 대북 무역상과 관계자들과 다시 인터뷰를 한 결과(3월 28일), 1월 낙관적 전망과 상반되게 북측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측은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방역물품을 포함하여, 미국, 국경없는 의사회 등의 공식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공식, 비공식 무역을 일체 금지하였고, 북측 국경에 접근하는 물체에 사격을 하겠다는 공고까지 하였다. 위성관찰에 의하면, 청진, 남포 등에 북한 선박들이 상당수가 정박해 있어, 물류와 교통이 중단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신의주-단동 사이에 외교관 및 국제기구 등을 위한 외교행낭을 제외하고 대부분 차단되었다.

4월 초 재개를 준비하였지만, 3월 28일 중국 중앙정부의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면서 국경이 폐쇄되었다. 그럼에도 4월 1일부터 소규모로 매일 트럭 10대 이하 수준의 무역이 재개되었다. 4월 15일 태양절부터 10여일 간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출연하지 않자, 각국에서 중병설이 돌았지만, 국경과 베이징 지역 등의 북한식당(지분은 중국인소유) 등이 재개되었고, 신압록강대교 등 북중 산업인프로그 건설도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북중 국경이 수차례 양국의 정치적 갈등을 원인으로 폐쇄한 사례는 있지만, 전염병에 의한 폐쇄조치가 있고, 더불어 지구촌 경기 침체와 동반하여 북측 경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고자료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 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화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

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무위원회 위원장

문 재 인

김 정 은

***참고자료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

◆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 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약속하였다.

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약속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쎄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 합 중 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대 통 령

김 정 은

도널드 제이. 트럼프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참고자료3.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MEMO

- Name . affiliation (성함 및 소속) _____

MEMO

MEMO

MEMO

【민화협 2020 통일정책포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디엠빌딩 15층

| 발행일 2020. 5. 26.

| tel 02.761.1213 | fax 02.761.6590 | www.kcrc.or.kr
